

氏族村落의 形成過程과 立地 및 儒敎 文化景觀

—安東地方의 士族村落을 중심으로—

金 德 鉉*

《目

次》

- | | |
|-----------------------------------|---|
| 1. 研究目的과 研究方法 | 3. 安東地方 士族村落의 形成過程, 立地 및 文化景觀 特性에 관한 綜合的 考察 |
| 2. 安東地方 氏族村落의 形成過程과 立地, 儒敎 文化景觀 | (1) 氏族의 居住地 移動과 擴散의 性格 |
| (1) 士族居住地로서 安東地方의 背景 | (2) 氏族村落의 立地 特性 |
| (2) 安東地方의 氏族村落의 形成過程과 立地, 儒敎 文化景觀 | (3) 村落의 文化景觀 特性 |
| | 4. 結 論 |

1. 研究目的과 研究方法

본 연구는 조선시대 安東地方의 氏族村落形成過程과 立地 및 景觀을 연구함으로써 문화적 영향과 관련된 村落形成의 특징을 이해하고 나아가 한국 전통촌락에 대한 文化·歷史地理的 설명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¹⁾

文化地理學은 주로 역사적 접근방법을 사용하며 문화가 공간적으로 표출되어 형성된 촌락은 그 주요 연구대상의 하나이다.²⁾ 또한 촌락은 農耕社會인 朝鮮時代의 生活空間³⁾을 이해하는데 가장 적절한 공간단위가 된다는 점에서도 역사시대의 공간구조 이해에 차지하는 촌락연구의 중

요성을 살필 수 있다.

朝鮮時代의 村落은 韓國史, 人類學, 農村社會學 분야에서 전통사회 연구의 주요대상이 되어 왔으며 지리학 분야에서는 同族部落의 형성과 발달이 공간형태적 관점에서 혹은 동족부락을 地域이라는 공간을 구성하는 文化景觀으로 보고 발생, 입지, 구조와 기능을 종합적으로 관찰한 연구가 있다.⁴⁾

본 연구에서는 朝鮮時代의 支配的 文化인 儒敎와 관련하여 文化集團의 居住地 形成 즉 居住地의 移動과 立地의 選擇, 그리고 촌락의 文化景觀 形成의 諸 特徵을 고찰함으로써 文化空間 形成過程을 파악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朝鮮時代에 주로 성립된 氏族村

* 서울大學校 大學院 博士過程

- 1) 本稿는 필자의 碩士學位論文(83년 8월)을 요약 정리한 것임.
- 2) 李燦外, 1981. "大學院 地理學科 敎育課程 發展을 위한 研究," 地理學論叢, 제 8호, p.91.
- 3) 水津一朗(社會地理學의 基本問題, p.31, 大明堂, 1980)에 의하면 "社會生活이 영위되는 空間的 基盤으로서 「生活空間」을 생각한다. ...따라서 「地域」(Landschaft)과 同義語로 된다."
- 4) 楊普景("半月面 四里 同族部落에 대한 研究," 地理學 論叢, 제 7호)은 동족부락의 발전과정을 가옥과 경지를 지표로 형태에 중점을 두고 파악하였다. 張保雄(1983, "全南地方 同族部落의 構造와 機能," 地理學 27호)은 全南地方 13개 동족부락의 제 문화경관 요소를 기능적·형태적 접근으로 종합하였다.

落⁵⁾ 연구를 위하여 주요 형성세력인 士大夫 氏族의 儒敎文化와 관련된 村落形成을 가장 전형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지역으로 慶北 安東郡과 그 일대(朝鮮時代 安東府 및 禮安縣)를 研究地域으로 택하였다.

2. 安東地方 氏族村落의 形成過程과 立地, 儒敎 文化景觀

본 연구에서 安東地方은 오늘날 慶北 安東郡과 奉化郡의 대부분으로서 朝鮮時代 安東府의 本府 및 屬縣 그리고 禮安縣 일대를 포함한다. 이 지역은 「安東文化圈」으로 불리워질 수 있을 만큼 朝鮮時代 儒敎文化의 영향이 가장 큰 지역으로 생각되어 왔다. 朝鮮王朝 5백년간 儒敎文化의 지배적 영향하에서 특히 嶺南은 「鄒魯之鄉」이라 하여 儒敎文化의 淵源地이며 安東은 바로 嶺南文物의 中心地였다.⁶⁾ 또한 이 지방은 조선 초기 이래 수 많은 士族들이 儒敎文化 영향에 의한 가장 전형적 兩班 氏族村落을 형성한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⁷⁾

(1) 士族 居住地로서 安東地方의 背景

安東은 高麗 建國에 功을 세우고 그 後에도 中央에 叛旗를 들지 않고 紅巾賊 侵入時에는 恭愍王을 맞아 정성껏 호위한 덕분에 특히 고려 말부터 土姓 吏族의 士族化가 많았다.

安東의 代表的 土姓 士族인 安東權氏와 安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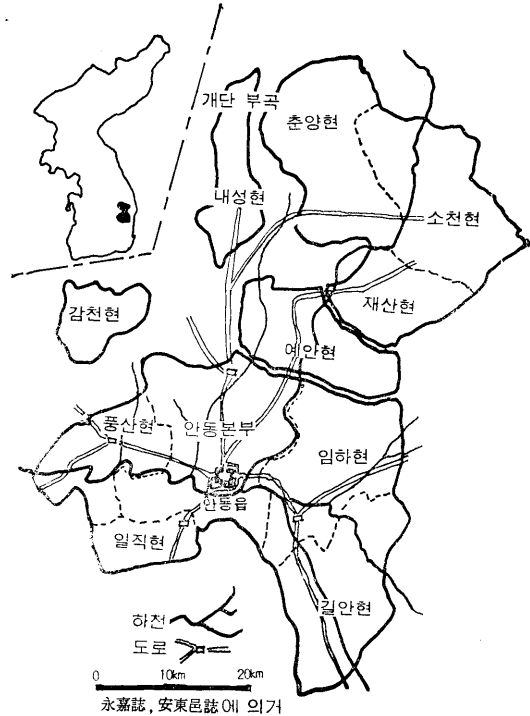


그림 1. 朝鮮時代 安東府·禮安의 境域과 道路

金氏는 고려 시대에 이미 名門鉅族으로 成長하였다. 14세기 王朝 交替期와 15세기 中葉의 世祖의 찬탈 및 그 후 빈번한 士禍로 인하여 在京 官人의 落鄉이 많아졌을 때 이들 落鄉士族은 결국 外鄉·妻鄉을 통해 移住함으로써 安東地域은 士族의 雲集地가 되었다.⁸⁾

安東地方의 官人化 過程을 통하여 儒敎文化에 젖은 士大夫 階層을 끌어 당길 수 있었던 다른 중요한 要因은 士大夫 階層의 地域觀 내지 可居

5) 본 연구에서는 '同族部落', '同姓部落', '氏族村落' 등의 표현을 氏族村落으로 통일한다. 여기서 '氏族'이라 함은 조선시대 家父長制 확립 이후의 父系 血緣集團을 말한다. 따라서 父系血緣만을 의미하지 않는 일본의 '同族'과 구별하고 한 마을이 同一先祖를 중심한 하나의 氏族으로만 구성되었음을 강조하게 되는 同姓과 구별된다. 金宅圭(氏族村落의 構造研究 pp.321~326)에 의하면 '氏族'은 조선시대 유교문화에 의해 성립된 父系血緣을 宗族組織으로 地域적으로 편성한 歷史的 實體이다.

또한 '村落'이라 함은 地緣團體를 강조하는 部落을 社會學的 用語로 보고, 이를 구별하여 마을의 공간적 의미를 강조하는 용어로 사용하였다. (신용철, 신기철 편저 「새우리말 큰 사전」 p.1520(부락), p.3283(촌락)참고, 崔在錫(韓國農村社會研究 pp.59~74) 참고.

6) 成均館大學校 國語國文學科 安東文化圈 學術調查團, 1967, 安東文化圈 學術調查報告書, p.3.

7) 善生永助는 安東지방의 儒敎文化 影響을 아래 인용과 같이 강조하고, "第四節 儒敎의 鄉土의 影響"(pp.683~721)에서 安東의 氏族村落과 輩出 儒學者를 기록하였다.

"나는 朝鮮의 人文地理 研究를 뜻하여 그 한 부문으로서 儒學의 발달, 보급, 분포, 감화, 영향, 現勢 등을 상세히 지방적으로 검토하다가…… 朝鮮의 地方 중에 가장 儒學이 발달하고 兩班 儒林의 淵藪으로 불려 위지는 곳은 新羅, 高麗, 李朝에 걸쳐 많은 학자·정치가를 낸 慶尙北道 安東郡이라고 믿는다. 그래서 약 지방에 있어 儒敎文化를 서술하고 함께 儒敎의 鄉土의 影響을 천명해 보고자 한다." (1935, 朝鮮의 村落, 下篇 p.683)

8) 李樹健, 1981, "嶺南士林派의 在地的 基盤—朝鮮前期 安東地方을 중심으로," 新羅伽耶文化, 12호 p.13.

地觀과도 관계가 깊다. 慶尙道地理志에는 “토질이 척박하고 風氣는 冷하지만 風俗은 農桑을 숭상하고 禮讓을 重히 여기고 또한 근검절약한다”고 하였다.⁹⁾ 星湖 李瀛은 嶺南은 山勢가 峻峭으로 돌아 둘러 싸고 있어 물이 흘러져 흐르지 않고 여러 고을 물이 날날이 合流되어 風氣가 모여지는 이른바 局面을 이루고 있으며, 安東·禮安에는 到處에 名堂이 열렸다고 評하였다.¹⁰⁾ 嶺南의 安東地方은 太白과 小白山脈이 屏風처럼 둘러있고 落東江이 西流하면서 수 많은 大小 支流를 合流하여 많은 山間溪谷을 形成하였다.¹¹⁾ 이러한 溪谷은 大개 避兵避世하기 유리한 자연지세를 갖추었고 旱害와 水害를 최소로 줄여 비교적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幽閑한 情景를 좋아하는 士林派의 卜居地形成에 유리하였다.

擇里志는 경상도를 “人材府庫”라 하고 특히 太白山 밑은 山이 평평하여 들이 넓으니 ‘明秀晴朗’하며 흰 모래와 단단한 土質이어서 氣色이 完연 漢陽과 같다고 評하고 禮安·安東·順興·榮川·醴泉 등을 “神이 알려 준 福地”로 예찬하고, 특히 “安東과 禮安은 退溪 李滉과 西厓 柳成龍의 故郷이다. …서로 가까운 이 다섯 고을에 士大夫가 가장 많다”고 하였다.¹²⁾

(2) 安東地方의 氏族村落의 形成過程과 立地, 儒敎 文化景觀

本稿는 性理學이 전래되는 고려말에서 朝鮮시대에 걸치는 氏族集團의 村落 形成過程을 유교 문화와 관련하여 연구코자 한 바, 研究對象 氏族으로 眞寶 李氏, 義城 金氏, 安東 權氏, 豊山 柳氏, 全州 柳氏등 5개 士大夫 氏族을 선정 고찰한다.

1) 眞寶 李氏(인접 郡縣 本貫姓)

9) 慶尙道地理志 道內各官 風土俗尙條

10) 李瀛, 星湖僿說 1卷下 天地篇 兩南水勢條

11) 鄭鎭元(1983, “韓國人の 環境知覺에 관한 研究,” 地理學論叢, 9호, 서울大學校 社會科學大學·地理學科)에 의하면 溪谷을 나타내는 崙(谷) 地名이 安東, 奉化(과거 安東府 지역)가 각각 27.4%, 27.9%로 전국 최고 비율을 점한다. 또한 谷과 같은 의미인 ‘실’ ‘일’을 더하면 전체 지명의 35%, 32%로서 全國 平均 19.1%에 비하면 매우 높다.

12) 李重煥, 「擇里志」八道總論—慶尙道.

13) “吾家世錄(眞寶 李氏 家譜)에 의하면,

“우리 진보 이씨는 고려 말엽에 일어났다. 시조 휘는 願이신데 진보 고을의 아전출신으로 생원시에 합격 하였으며……대대로 읍내에 살았는데”

眞寶 李氏는 원래 眞寶縣 鄉吏로 眞寶縣 邑內에 거주하였다.¹³⁾ 高麗末 14세기 중엽 李子脩가 紅巾賊 침입시 裨將으로 從軍하여 戰功을 세워 松安君에 封하게 됨으로써 士族으로 신분상승하고 本貫地를 이탈 豊山 麻厓에 移居하였다. 15세기 중엽 4세 禎은 安東府 北 周村으로 옮기면서 이곳은 禎의 長子 遇陽 자손의 世居地가 되었다. 禎의 次子 繼陽은 처음 妻家가 있는 禮安縣浮羅村에 거주하다가 15세기 말 奉化縣의 訓導로 부임차 가는 길에 溫溪를 지났는데 그는 이곳이 村落形成의 適地임을 알고 溫溪에 卜居하게 되었다. 李滉은 그의 祖 繼陽의 溫溪 卜居事由를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妻)金氏家, 在禮安縣西村, 公(繼陽)初居縣東浮羅村, 爲奉仕縣訓導, 一日將往奉仕過溫溪, 愛其泉石之勝, ……公及決意移居, 時, 溪上只有一戶, 田疇閒廢, 隨處可耕, 樹木茂密, 洞壑深窈, 溪水清彥, 多鱖魚, 可引而溉田灌圃, 公性恬靜閑遠, 不務進取, 以耕釣爲樂, 教子孫爲業, 有終焉之志(「退溪集」繼集 卷8, 先祖考諱繼陽事跡條)—방절 필자

또한 退溪 李滉은 16세기 중엽 관직에서 은퇴한 후 溪流를 찾아 定居한 자신의 심경을 다음 詩와 같이 표현하였다.

身退安遇分 學退憂暮境

溪上始定居 臨流日有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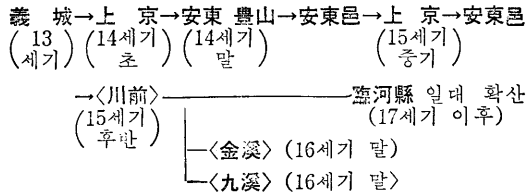
李滉의 손자대에 와서 長子 安道는 宗家가 있는 上溪, 二子 純道の 자손은 17세기 중엽에 낙동강 건너편인 宜仁, 그리고 三子 泳道の 자손은 下溪로 각각 확산되었다.

이상 眞寶 李氏의 居住地 移動을 통하여 安東地方에서 형성한 대표적 氏族村落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眞寶—〈麻厓〉—〈周村(주하)〉—〈溫溪〉—
 (13세기) (14세기)(15세기초) (15세기 후반)
 〈兎溪〉→兎溪周邊 낙동강 상·하류로 확산
 (16세기) (17세기 이후)

2) 義城 金氏(인접 郡縣 姓)

義城金氏 金璣 家門을 중심으로 거주지 이동, 확산을 시대별로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金溪의 立地, 氏族村落 形成過程 및 儒敎 文化景觀 :

지금의 安東郡 西後面 金溪洞에 해당한다.

이 마을은 북쪽 天燈山 아래 商山과 佳鳳山에서 발원한 시내가 마을의 북쪽인 春坡에서 합류하여 남쪽으로 貫流하면서 좌우의 작은 지류를 합류하여 마을 입구(만운)를 지나 松夜川 본류와 합류하기까지 형성한 南南東 방향의 긴 골짜기와 東西 방향의 작은 골짜기로 형성되었다. 「金溪誌」에 의하면 옛날 사람들이 이 모양을 거문고(琴) 모양으로 보아 琴堤라 불리웠다고 적고 있다. 또한 이 마을은 북쪽이 標高 200m 내의 (해발 300m)의 비교적 높은 商山, 佳鳳山 등에 의하여 막혀 있으나 동서는 비교적 낮은 평균 標高 50m 내외의 낮은 산에 둘러 싸이고 남쪽 洞口는 낮은 산지에 의하여 좁은 입구를 만들어 洞 外部와 지형적으로 구분된다.

‘曰故者 溪分兩水, 中開虛落, 而如琴形, 故稱……軟山環抱, 氣色明媚’
 —金溪志 序—

金溪는 조선 전기(14세기~16세기) 즉 性理學이 도입되고 지방으로 확산되는 시기에 科擧 등으로 士大夫 신분을 확보하고 새로운 卜居地를 찾아 移住한 여러 士族의 村落이 되었다. 17세기 이후의 金溪는 점차 安東 權, 原州 邊, 安東 張, 義城 金氏의 氏族村落으로 새로운 士族의 이주가 없었으며, 조선 시대 말에 와서는 이 마을이 배출한 대표적 性理學者인 金誠一과 張興孝의 후손이 거주하는 유명 氏族村落으로 알려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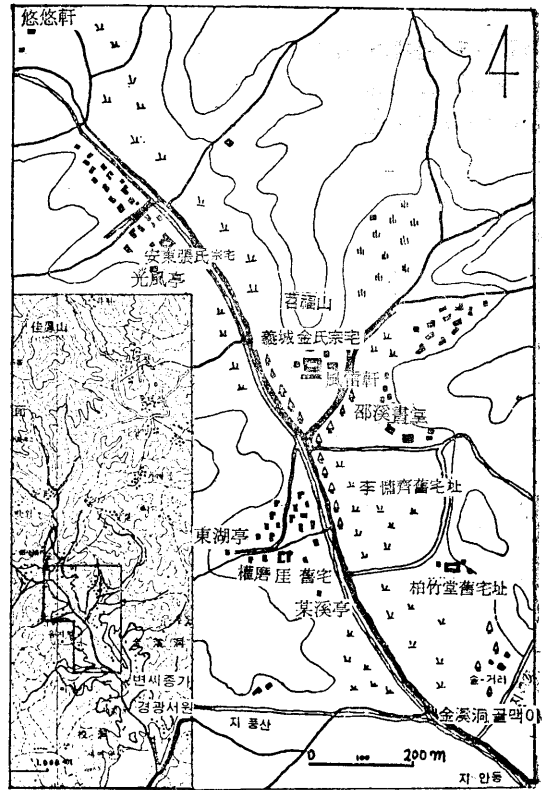


그림 2. 金溪의 文化景觀 復元圖(19세기 말기준)

게 되었다.

한편 이 마을의 취락형태가 다른 同姓村落에서는 보기드문 小集村이 散在하는 형태를 보이게 된 것은 地形的 要因 외에도 각 씨족이 宗家를 중심으로 거주지를 형성한 것과 관련된다고 생각된다.

3) 安東 權氏(安東本府 本貫姓)

安東 權氏는 安東 最大의 士姓이다.

權機 가문은 고려 후기부터 吏族에서 士族으로 신분을 상승시켜 오다가 고려말 14세기 중반 權靱 代에 邑內에서 安東府 서쪽 松坡(松夜)에 터전을 잡고, 그의 자손은 인근 지대에 토지와 거주를 확장하여 갔다.

權士彬은 如祖父인 鄭 若을 따라 15세기 후반 松夜에서 府北 道村(道溪村)으로 移居하였다.

士彬의 次子 機은 道村에서 출생하여 高官을 역임하였는데 1521년 外가인 坡平 尹氏 터전이었던 柰城 西谷(탑실)에 卜居하면서 농장을 개설하고 또 1535년 春陽縣에 別莊을 개설하였다.

그의 자손은 西谷을 發판으로 柰城·春陽縣

3. 安東地方 土族村落의 形成過程, 立地 및 文化景觀 特性에 관한 綜合的 考察

(1) 氏族의 居住地移動과 擴散의 性格

土族村落 形成이 시작된 시기 즉 入鄉時期는 14세기 (高麗末)에서 16세기(朝鮮前期·壬亂前)이다.¹⁵⁾ 安東을 본관으로 하지 않은 姓氏가 安東에 入鄉하게 된 계기로는 土着 在地土族과의 婚姻에 의한 妻鄉 入鄉의 경우와(義城 金氏의 내안人鄉, 全州 柳氏의 무실 入鄉) 鄉吏에서 土族으로 身分上昇과 함께 새로운 卜居地를 택한 경우(眞寶 李氏)가 있다.

安東府 내에서의 거주지 이동의 특성을 살펴 보면, 安東의 土姓 즉 安東 權氏와 豊山 柳氏는 13세기까지 安東과 豊山의 戶長으로서 官衙에 가까운 邑內에 거주하다가 14세기경 土族의 신분을 확보하면서 城·邑을 벗어나 주변 촌락으로 이주하였다. (豊山 柳氏: 豊山 上里→河回, 安東 權氏: 安東邑→松坡(松夜))

安東에서 최초의 居住地를 확보한 氏族은 安東府 혹은 인접 郡縣으로 중거리 이동을 하는데 이는 15세기부터 시작되어 16세기에 가장 활발하게 나타난다. (眞寶 李氏: 麻厓→周村→溫溪, 安東 權氏: 松坡→道村→酉谷, 義城 金氏: 川前→金溪) 중거리 이동은 族人 중에 官僚로서 혹은 學者로서 立身의 정도가 높은 사람에 의하여 행해지며 (金誠一: 내안→金溪, 權廢: 道村→酉谷) 다른 族人은 先代의 거주지에 계속 거주한다. 중거리 거주지 이동의 經路는 道路와 관련되어 있다. (道村→酉谷: 安東-甕泉-乃城을 연결하는 安東北路 방향, 周村→溫溪: 安東-禮安-奉化도로)

17세기 이후 安東의 土族村落 形成은 중거리 이동보다는 인구증가에 의한 주변지 확산이 중요한 특성이다. 眞寶 李氏의 거주지는 토계에서 지금의 陶山面 일대 洛東江 상·하류로 확산되고, 義城 金氏는 내안(前川)에서 半邊川 상류 방향으로, 安東 權氏는 닭실(酉谷)에서 乃城川 상류와 春陽 方面으로, 全州 柳氏는 무실(水谷)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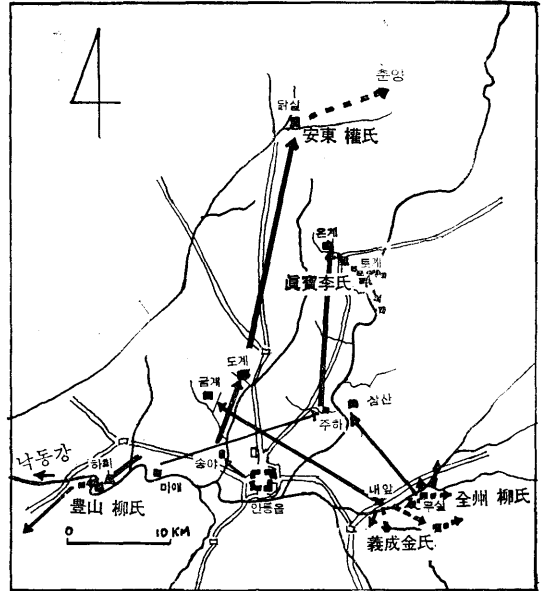


그림 4. 씨족의 이동·확산방향과 경로

서 大谷川 支流 方向으로 거주지를 확산시켰다. 豊山 柳氏는 河回 주변 낙동강 연안에 확산되는 외에 중·장거리 이동에 의하여 尙州 愚川, 義城 生物 등지에 새로운 거주지를 형성하였다.

(2) 氏族村落의 立地特性

安東府 일대는 洛東江 본류와 半邊川이 흘러 합류하는 盆地 地形으로 洛東江의 本流와 支流가 형성한 大小의 侵蝕溪谷이 곳곳에 발달하고 있다. 侵蝕溪谷에는 많은 溪居聚落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安東地方의 村落名에는 溪谷과 관계되는 谷, 실, 질, 일, 溪, 川, 河, 내 등의 地名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낸다.¹⁶⁾

본 연구의 대상이 된 氏族村落도 모두 溪谷에 立地한 溪居聚落이다. 이들 溪居聚落을 지형적 특색에 따라 보다 細分하면 背山臨流形과 溪谷 盆地形으로 구분할 수 있다(그림 5, 6).

背山臨流形으로 분류될 수 있는 河回, 내안(川前) 등은 地形의으로 비교적 높은 산과 큰 하천에 의해 둘러싸여 있는 曲流河川 堆積面의 平坦地이다. 마을은 비교적 넓으며 하나로 통일되어

15) 筆者의 조사에 의하면 안동의 유명 土族 가운데 安東 入鄉時期가 가장 늦은 氏族은 一直 蘇湖의 韓山 李氏로서 17세기 초엽 光海君 때 서울에서 落南하였다.

16) 安東地方의 溪谷 意味 地名은 35%이며 전국 평균은 19%이다(鄭鎮元, 前揭論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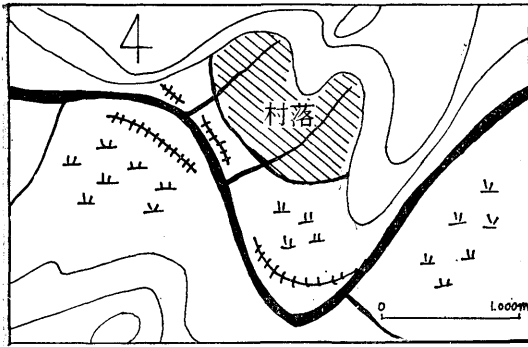


그림 5. 背山臨流形 村落立地の 模式圖

있어 100戶 내외의 大姓巨村의 立地와 전형적 集村 發達에 유리한 地形條件을 갖추고 있다.¹⁷⁾ 이들 背山臨流形 村落은 地形的으로는 외부와 단절된 독립적 단위를 나타내고 있으나, 마을의 인구가 많고 경지면적은 상대적으로 협소한 까닭에 마을 외부의 토지에 의존하는 율이 높다. (河回의 토지는 豐山平野, 내앞의 토지는 臨河縣 일대) 따라서 촌락 자체는 地形的으로 외부와 분리되어 있으나 이들 촌락은 외부 마을과 밀접한 경제적·사회적 연관을 가지고 있었다.

한편 溪谷盆地形으로 분류될 수 있는 金溪, 道村, 무실 (水谷) 등은 小河川이 山地사이를 貫流하면서 樹枝狀의 좌우 지류를 合流하여 형성한 좁고 긴 侵蝕盆地이다. 盆地 내의 마을은 지형적으로 다시 여러 작은 골짜기로 구분되어 있어 하천 양쪽에 소규모의 集村이 산재하여 발달하기에 유리한 지형 조건을 갖추고 있다. 金溪는 다수 氏族이 한 마을에 거주하는 複數 氏族 村落을 형성하였다. 한편 무실은 같은 中始祖에 의해 형성되었으면서도 촌락내에서 다시 派가 나누어지는 뚜렷한 分村 현상을 나타냈다. 金溪·무실과 같은 특색있는 氏族村落의 발달은 이러한 지형적 要因과 관계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들 溪谷盆地형의 촌락은 지형적으로 역시 외부와 산지에 의하여 구분되며 洞의 入口는 마을을 貫流하는 하천의 하류가 된다. 또한 마을은 주위의 丘陵性 低山地에 의하여 둘러싸여 있으므로 背山臨流形에 비하여 開墾의 여지가 많다. 촌락의 규모는 背山臨流形에 비하여 작고 耕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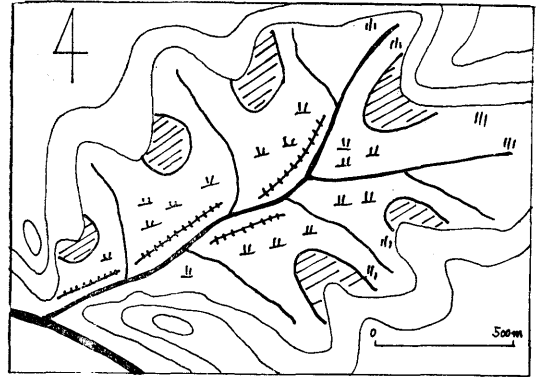


그림 6. 溪谷盆地形 村落立地の 模式圖

는 상대적으로 넓은 까닭에 촌락의 경지는 마을 내의 土地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았다.

본 연구에서 考察對象이 된 溪居聚落들은 조선 시대의 入鄉 始祖와 그들의 자손 혹은 다른 士大夫 兩班 知識人들에 의하여 景勝地 혹은 福地(可居地)로 인식되고 있었다. 이들 촌락의 경치를 묘사한 글을 예로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陶山: “물은 거룻배를 이용하기에 족하고 골북판에는 고목(古木)이 매우 많아서 조용하고 시원하다. 산 뒤와 시내 남쪽은 모두 좋은 밭과 평평한 밭둑이다.”

河回: “潢江 물이 휘돌아 출렁이며 마을 앞에 모여 들어 깊어진다…… 강가에 둘러 있는 산은 모두 석벽이고 돌빛이 차분하면서 험악한 모양이 전혀 없다. 그 위에 玉淵亭과 작은 암자가 바위 사이에 점점이 잇달았고 소나무와 전나무가 덮여 있어 참으로 절경이다.”

—이상 李翼成역, 擇里志 卜居總論 山水, p. 235—

내앞(川前): 밝은 달빛아래 비단을 빨아 널어 놓은 형국

—村山智順, 朝鮮의 風水 p. 832—

金溪: “軟山環抱, 氣色明媚, 一溪中貫, 閭閻撲地.”

“金溪之洞, 幽邃閑靜. 風土淳老, 泉石明眉.”

—金溪志—

溫溪: 兜溪之曲, 樂其幽深, 棲之四十餘年, 以泉石自娛, 宅邊有水, 溉良田數百頃以自贍, 小有餘蓄—國朝人物考 中 (pp. 696—697) 李樹健, 嶺南士林派의 形成, p. 208에서 재인용—

17) 善生永助(前掲書, p. 350)에 의하면 저명 동족부락 1,685개 가운데 150戶 이상(非同族 포함)은 9%에 불과하다. 1930년경 조사 당시 河回는 290戶, 내앞은 156戶였다.

답실: “선생이 살고 있던 동문밖은 물이 맑고 돌도 깨끗하여 그 그윽하고 아름다운 경치가 티끌 세상을 떠난 듯 하였다.

—冲齊先生文集 “冲齊先生 年譜” p. 85—

무실 岐陽里社: 閑靜幽邃한 鵝岐山斷麓

박실 三槿亭: 石澗溪流 斷崖鬱林地

—完山世蹟—

위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士大夫들은 村落의 ‘幽邃閑靜’한 경치와 溪流와 石壁으로 이루어진 ‘泉石之勝’을 애호하면서도 논밭을 일구어 ‘以耕釣爲樂, 教子孫爲業’하는 景勝과 生利를 다같이 중시한 것이다.

(3) 村落의 文化景觀 特性

士大夫 氏族村落의 儒敎의 文化景觀의 特性은 16세기부터 형성되었다. 嫡長子優位 相續制度和 養子制와 같은 宗法의 실천 즉 性理學의 生活規範의 民間定着은 17세기부터지만, 安東地方의 경우 16세기를 전후하여 각 氏族을 대표하는 中心人物이 배출되고 이들에 의하여 鄉村의 儒敎的 敎化가 적극 추진되었기 때문이다.

村落의 景觀을 그 구성 요소별로 보면 다음과 같으며 空間配置 形態는 模式圖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그림 7).

聚落: 보통 마을 뒤 산지의 主山의 脈이 끝나는 完경사지 혹은 평지에서 하천을 마주보며 宗家를 중심으로 형성된다. 마을의 坐向은 南向(午向)이 좋으나 촌락의 地形·地勢에 따라 다르다.

동수(洞樹): 마을의 서쪽 혹은 북서쪽이 지형적으로 막혀 있지 않은 경우 人工造林에 의한 松林地帶가 형성되어 있다. 마을과 하천 사이에도 洞樹가 형성된다. 洞樹는 마을의 한쪽이 공허한 것을 채워 주는 調和的 意味 혹은 風水의 해석도 가능하다.

道路: 하천 제방이 마을과 마을 밖을 연결하는 마을의 간선도로로 이용되었다.

宗家: 入鄉始祖·中始祖의 祠堂이 있는 宗家は 主山의 脈이 끝나는 낮은 구릉지 앞의 마을 중앙에서 하천을 바라보며 위치한다. 祠堂은 宗家 건물보다 좀 높은 宗家의 側面에 자리잡는다. 宗家의 바로 뒤에 있는 산은 보통 50m 이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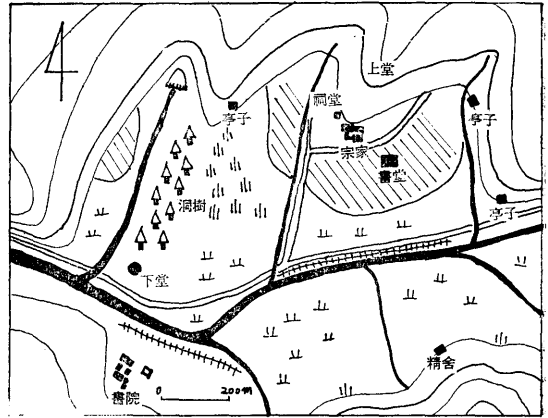


그림 7. 氏族村落 文化景觀 要素 配置의 模式圖

의 낮은 구릉으로 마을에서 가장 松林 造林이 잘 되어 있다. 마을에서 가장 건립 역사가 오래 되고 위풍이 당당한 기와집인 宗家は 氏族村落 構成員의 宗族의 紐帶의 중심공간 역할을 하고 朝鮮時代에는 兩班氏族의 對外的 威勢를 상징하기도 했다.

書院: 安東地方에서 최초의 書院은 1570년 易東 禹倬을 모시는 易東書院이며 17~18세기에는 많은 氏族村落의 祠·書堂이 書院으로 승격되어 氏族의 中心人物을 奉享하고 鄉村의 儒敎的 敎化 機能을 담당하였다. 書院은 奉享人物과 규모에 따라 賜額書院과 鄉賢祠로 나누어볼 수 있다. 鄉賢祠는 보통 洞入口 혹은 마을 내부의 景勝地에 입지하며(河回: 花川書院. 무실: 岐陽里社) 賜額書院은 洞밖의 景勝地에 입지한다. (토계: 陶山書院, 河回: 屏山書院, 답실: 三溪書院)

書堂·精舍·亭: 16세기 이후 각 氏族村落의 儒學者들은 溪流가 있는 幽邃閑靜한 골짜기를 택하여 亭子를 건축하고 讀書·講學場으로 삼았다. 亭과 精舍 그리고 書堂의 명칭에는 분명한 기능상의 차이점을 발견할 수는 없으나 書堂이 보다 公的 教育場이라면 亭·精舍는 私的 性格이 강하다. 서로 혼용되는 경우가 많다.

4. 結 論

본 연구는 조선시대 촌락의 성격을 이해하기 위하여 安東地方의 士大夫 氏族의 居住地 移動과 氏族村落의 立地 및 景觀 特徵을 고찰하였다. 특히 조선시대 儒敎文化의 空間的 影響을 밝히기 위하여 儒敎文化의 중심세력인 士大夫 氏族

村落의 여러가지 性格에서 儒敎文化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安東地方의 眞寶李氏, 義城 金氏, 安東 權氏, 豊山 柳氏, 全州 柳氏 등 5개 士族의 氏族村落에 대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士大夫 氏族 居住地 形成過程은 性理學의 儒敎의 도입, 전파 및 文化적 정착과 시기적으로 관련되어 있었다.

安東의 士大夫 氏族은 13세기까지 本貫地 郡·縣의 城·邑과 가까운 주변에 거주하였다. 그러나 조선시대의 士大夫 氏族村落은 모두 14세기 性理學 도입이후에 城·邑 밖에 형성된 것이다.

13세기까지 지방·郡의 鄉吏 혹은 豪族이었던 이들 氏族은 14~16세기에 士大夫 階層으로 신분을 상승시키면서 本貫地를 이탈, 中·장거리 이동을 하여 새로운 거주지 즉 卜居地를 만들었다. 특히 性理學의 전성시대인 16세기에는 安東地方에서 많은 儒學者와 政治家가 배출되고 이들을 중심으로 入鄉 始祖의 터전에서 分派하여 새로운 村落을 형성하는 中·단거리 거주지 이동이 가장 활발하였다. 그러나 性理學의 儒敎 規範이 생활문화로 정착하는 17세기 이후 거주지 형성의 특징은 새로운 촌락을 형성하는 거주지의 이동보다는 分派 始祖가 확보한 토지를 기반으로 하여 人口增加에 따라 居住地가 連續적으로 擴散되는 경향이다.

이러한 村落形成의 시대별 특성은 朝鮮前期의 儒敎가 士大夫 階層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生活空間 形成과 관련되는데 반하여 朝鮮後期の 儒敎는 村落의 儒敎的 景觀 特性에 주로 관련되었다는 점을 나타낸다고 생각된다.

2) 中·장거리 居住地 移動은 상대적으로 신분의 상승 정도가 높은 사람에 의해 행해지며 루트는 도로이다. 그러나 居住地의 連續的 擴散은 인구 증가에 의해서 하천의 상·하류 방향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조선시대에도 中·장거리 이동에는 도로와 우마차등 운송수단의 이용이 필요하였으며 稻作 農業社會의 技術的 制約하에 인구증가에 대처하는 農地開墾의 방향이 灌溉에 편리한 하천연변이라는 점에서 이해된다.

3) 士大夫 村落 立地의 지형적 특색은 山間溪谷에 입지하는 溪居이며 溪居는 다시 背山臨流形과 溪谷盆地形으로 구분할 수 있다.

背山臨流形의 村落에는 同姓의 대규모 集村이 발달하였으며 溪谷盆地形에는 複數 氏族村落 혹은 同姓氏族의 分村現象이 나타나고 小集村이 散在하는 형태가 발달되었다.

溪居村落은 공통적으로 ㉠ 촌락 외부로부터 지형적으로 고립되어 있으나 ㉡ 농경지를 盆地 내부 혹은 가까운 하천 주변평야에 확보하여, 士大夫 氏族村落의 독립성과 위세를 유지할 수 있는 地形條件과 經濟的 條件(生利)을 구비한 立地이다. 또한 溪居村落은 ㉢ 村落가 가까운 곳에 세상에서 벗어난듯한 깊은 골짜기의 평온한 아름다움과 시원스러운 운치를 즐길 수 있는 溪流와 泉石을 갖춘 景勝地로서 士大夫 階層에서 知覺되었다. 이는 擇里志에서 말하는 士大夫 可居地로서 溪居의 특징(有平穩之美, 蕭洒之致, 又有灌溉耕耘之利)과 부합한다.

4) 士大夫 村落의 景觀은 16세기부터 宗家, 書院, 亭(精舍) 등으로 구성되는 뚜렷한 儒敎文化의 특색을 나타나게 되었다. 그러나 村落文化 景觀의 전체적 성격은 土俗文化(shamanism)을 포함하는 累積的 성격으로 이해된다.

溪居 村落의 구조는 지형적 특색에 큰 영향을 받았다. 마을의 주택들을 마을 뒤 산지를 배경으로 하천을 마주보며 宗家를 중심으로 앞과 좌우로 형성된다. 洞樹는 마을의 서쪽이 지형적으로 개방되어 있는 경우 북서계절풍을 막아주는 人工造林地이다. 한편 村落의 全體的 調和를 살려주는 風水의 의미도 크다고 생각된다.

儒敎的 景觀 特色으로 入鄉始祖의 祠堂이 있는 宗家가 낮은 구릉성 산지 바로 아래에서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마을의 중앙을 차지하고 氏族의 中心人物을 奉享하는 書院이 洞入口 혹은 주택지에서 좀 떨어진 마을 景勝地에 立地한다. 또한 이름있는 마을 儒學者의 亭子가 村落 곳곳에 산재하여 儒敎 文化景觀의 특색을 나타낸다.

A Study of Sadaebu Clan Villages: Developmental Stages, Sites, and Cultural Landscapes Associated with Sung Confucianism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Andong Area

Summary;

Duk-Hyun Kim*

This is a study of *sadaebu* (privileged class in Yi Dynasty period; 士大夫) clan villages in the Andong area with emphasis on the developmental stages, sites, and cultural landscapes associated with Sung Confucianism.

Results of the field works concerning the villages of the five representative clans of Andong area, *Chinbo Yi* (眞寶 李), *Uisung Kim* (義城 金), *Andong Kwon* (安東 權), *Pungsan Ryu* (豊山 柳), *Chonju Ryu* (全州 柳), may be summarized as follows:

1) The formative process of *sadaebu* clan villages is closely related to the introduction of Sung Confucianism from China to Korea during the declining period of *Koryo* Dynasty and the earlier part of Yi Dynasty, its spread in the 15th-16th centuries and adaptation to the rural area in the 17th century. The above-mentioned five *Sadaebu* clan families had been local officials (鄉吏) and nobilities (地方豪族) until 13th century. They elevated their social status to *sadaebu* class during the 14th-16th centuries. An outstanding sub-founder of a clan left his original place and settled down on a new site. Sung Confucianism was flourishing in the 16th century, when many Confucian scholars and high ranking officials from the

Andong area became the new *sadaebus*. After the 17th century, Sung Confucianism became their guiding norm even in rural *sadaebu* clan villages. The residential area of a certain clan was apt to be diffused by the growth of descendants on the basis of the land that an outstanding sub-founder had possessed. The clan rarely moved to a new place to found another village.

The study reveals that the Confucianism contributed in earlier part of Yi Dynasty to the formation of new clan settlements, and after this period had an influence upon shaping cultural landscape of rural villages in the Confucian way of life such as *Chongga* (宗家), *So won* (書院), and *Chongja* (亭子; pavilions for study).

2) Far-distant migrations were made mainly by men of high position through main roads. The settlement was usually expanded along the river convenient to irrigation.

3) The typical *sadaebu* village is not located on a plain, but in a valley through which one or a few streams run. Such villages are classified into two types: one is the type of *baesan-imryu* (背山臨流) villages which have hill behind and stream foreground and the other is the type of *gegok-bunji*

Journal of Geography, 10, 1983. 12. pp.241~251.

*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溪谷盆地) villages which are located along a stream and its branches in the basin. In the former type a clan usually forms one single and large settlement, but in the latter type one or a few clans form plural settlements of smaller size. Valley settlements were advantageous to maintain in the unity of their inhabitants and easy to secure arable lands in the valley or nearby plains. *Sadaebu* class also enjoyed the beautiful scenes of their living environment .

4) *Sadaebu* clan settlements have unique cultural landscapes such as dignified *chong-ga* (the house in which clan-head's family live), *sowon* and pavilions, all of which are ass-

ociated with the Confucian culture. *Chong-ga*, usually located on the foot of a hill, is the center of the village life and has a *sadang* (祠堂; sanctuary for ancestral worship) with in its walls. It also gives a prominent and dignified feature to the village and plays a role of the spiritual center of the clan. *Sowon* at the scenic place of the village was dedicated to famous Confucian scholars of the clan. *Chong-jas* pavilions for studying which are owned by a scholar of the clan, are found here and there. *Sonang-dangs*, worshipping sites of shamanism do not seem so awkward in the Confucian cultural landscape.